

科學의 眞正한 方法論(三)

裴相河君의 理論을 批判함

柳春海

-君이나 나나 두말 할 것 업시 한 개의 人的 存在이다. 그런데 모든 權威는 넘우 만타. 그럼으로 『모든 權威를 懷疑하자』고 외치기 前에 모든 權威를 일제히 虛心坦懷로 研究實踐한다고 할 것 가트면 아즉 죽어보지도 안했스니 썩 나의 生涯가 얼마나 길는지 몰으되 權威의 모든 것을 죄다 研究, 實踐, 經驗해보기 前에 위선 나는 죽고 말 것이다. 『모든 權威를 懷疑하자』는 方法論的 原理는 드디어 생겨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필 나 쯤에 限 할 것이 아니요... 모든 것에게 尙當 할 수 잇는 普遍的인 原理 쯤는 眞理는 存在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前記 添言에서)

右에 引來한 것이 君이 觀念論的인 것을 赤裸裸하게 暴露시킨다. 君은 君自身이 主觀的이고 精的이고 非具體的이고 一面的인 것을 認知치 못하는 것갓다. 素朴한 經驗論과 唯物辨證法과의 境界線에서 彷徨하고 있다. 權威가 過多한 故로 一一이 研究實踐 할 수 업다하는 것은 全然히 觀念論的 解釋에서 나온 結論이다. 모든 權威는 不變的이고 動的이고 쯤 相呼關聯적이다. 맑스主義는 資本主義와 正反對되는 것이다. 그러나 兩者는 相互關聯의 關係에 있다. 君은 冊匣에 冊을 窺듯이 生徒를 點名하듯이 『一一』히 한편에서부터 차근차근 研究實行해야 보라고 하니까 一生이 不足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뒤에 細論하러 한다.

2+2=4라는 眞理를 君은 一個의 形式이고 쯤 君의 『懷疑하자』도 亦是이와 가튼 方法論的 形式이라 하얏다. 그러나 2+2=4가 두 개의 손가락+ 두 개의 손가락=네 개의 손가락

時計 2개+時計 2개=時計 4개

牛 2頭+牛 2頭=牛 4頭

觀念論者 2人+觀念論者 2人=觀念論者 4人

等等의 事實을 證明하나 그러나 君의 『懷疑하자』는 方法論으로서 何等의

價値가 업고 何等의 對象-事實과 現象-을 研究하여 그것을 知得치 못할 것이다. 君은 所謂 心的 動搖를 精的으로 諸般對象에 着手 할 새에 자아내려 한다. 故로 前述한 바와 가티 『懷疑하자』가 君에게 方法論으로 採用되는 것이다. 君이여! 全面的으로 具體的으로 客觀的으로 -辨證法的으로 君의 方法論을 進展식히기를 바라노라. 『懷疑하자』는 非辨證法的 觀念論者의 陣營에서 나오는 悲哀의 □이다. 古代 末 文明時代에-지금도 種種 볼 수가 있지만 -사람도 懷疑 할 줄 알았다. 朝鮮에도 自古로 迷信이 있고 盲信이 만다. 이것은 모다 懷疑를 證明하는 것이다. 高大한 山岳을 主觀的으로 懷疑하여 崇拜하고 電雷를 主觀的으로 懷疑하여 龍의 造化라하고 雜病을 主觀的으로 懷疑하여 惡魔의 作亂이라 하였다.

다음에 나는 『新興』(第三號)에 記載된 君의 『憎惡者』라는 隨筆에서 引來하려 한다. (但 이것은 匿名으로 發表되었으나-엇던 知友로부터 確實이 君인 것을 들은 故이다. 만일 君이 아니라면 容恕하라 眞理를 위하여!)

-『맑쓰』의 根源을 캐여 드러야 할 것이며 『맑쓰』의 辨證法的 唯物史觀을 云云하기 前에 『맑쓰』辨證法的 基礎를 探考하여야 할 것이다. 『헤-겔』의 辨證法을 읽어야 할 것이며 『포이엘바하』의 根本問題를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斷言하노니 朝鮮의 有志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헤-겔』의 辨證法을 『헤-겔』自身의 쓴 바에서 읽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躊躇하지 안코 그 사람의 終身的 奴隸라도 되려면 되려한다.-